

일반 논문

일상적 평화

: 미시적 평화담론의 한반도 적용과 의의

허지영 (서울연구원)

국문요약

한반도의 평화논의는 남북한의 정치적인 통합에 치중하며 평화의 다양한 개념과 형태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통일중심 평화논의를 확장하고자 갈등사회를 살아가는 평범한 개인들이 일상에서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미시적 차원의 평화적인 행동양식과 사고방식에 주목하는 일상적 평화이론을 고찰한다. 국제기구나 서구국가가 중심이 되어 자유주의 체제를 분쟁지역에 일률적으로 이식하는 방식의 자유주의 평화구축에 대한 비평적 성찰을 바탕으로 등장한 개념이 포스트자유주의 평화 담론이다. 평화구축 과정에서 갈등지역의 고유한 역사, 정치, 사회적 맥락의 중요성과 주체적인 행위자로서 지역주민의 참여를 강조한다. 일상적 평화는 포스트자유주의 담론 중에서도 갈등사회의 가장 미시적인 차원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개인들의 평화적인 행동과 사고방식, 그리고 미시적 차원의 평화활동이 거시적인 사회체제나 구조와 영향을 주고받는 평화의 구성성에 주목하는 개념이다. 본 연구는 일상적 평화의 정의와 특징을 맥킨티의 이론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정치적이고 구조적인 차원에 치중하는 평화이론들과 차별화되는 일상적 평화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확장성에 대해 고찰한다. 일상적 평화이론은 통일이라는 거대 담론을 넘어 한반도의 평화논의를 다양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일상적평화, 미시적평화담론, 포스트자유주의평화, 자유주의평화, 한반도 평화

I. 서론

한국 사회에서 평화와 관련한 논의는 통일 담론이 주를 이루었다. 오랜 분단 기간을 생각하고 분단이 사회에 미친 영향을 고려할 때 일견 당연해 보인다. 그렇지만 통일만 이루어진다면 한반도에 평화는 도래할 것인가? 상호적대성을 바탕으로 이질적인 정치·경제체제와 문화에 적응한 남북한 주민의 통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인가?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민족주의를 전제로 한 통일의 당위성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지만,¹⁾ 평화를 통일, 즉 남북한 간 단일한 정치체의 형성으로 인식하는 제한적 시각은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다.²⁾ 본 연구는 국내 평화 논의가 정치적 협상과 외교를 통한 남북한의 ‘제도적 통합’에 치중하여 평화의 다양한 형태와 개념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평적 시각을 바탕으로 갈등사회를 살아가는 평범한 개인들이 일상에서 주체적으로 만들어 가는 평화의 중요성에 주목하는 ‘일상적 평화(everyday peace)’ 이론을 소개하고 한반도에 적용하여 시사점을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상적 평화는 탈분쟁(post-conflict) 사회나 갈등이 만성화된 사회의 분열과 대립의 경계를 넘어 평범한 사람들이 실행하는 친사회적이며 친평화적인 행동양식과 사고방식을 연구한다. 갈등사회의 긴장 상태가 폭력적 갈등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개인적 차원에서 갈등의 상대 집단에 속한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능력, 즉, 미시적 차원의 “작은 평화(small peace)”에 관심이 있다.³⁾ 이처럼 미시적이고 개인

1) 김범수, 「통일과 평화, 시대와 세대 앞에 서다」, 『2021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학술회의 (2021. 10. 5), 24쪽.

2) 박주화, 「통일은 과정인가 결과인가? 국민들의 통일개념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8-44 (2018), 2쪽.

적 차원에 집중하는 일상적 평화의 특성으로 인해 일상적 평화는 적극적인 평화구축 행위가 아니라 개인들이 위협이나 갈등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취하는 일시적인 갈등진정(conflict-calming)이나 갈등회피 수단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갈등으로 극심하게 분열된 사회에서는 개인적 차원에서 갈등의 상대 집단에 소속된 사람에게 베푸는 사소한 행동일지라도 해당 사회를 지배하는 분열과 대립의 경계를 넘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용기와 결단을 요구하며 때로는 평화적 행동으로 인한 대가를 치러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일상적 평화의 관행과 사고방식은 근본적으로 갈등사회의 갈등문화와 구조에 대한 개인들의 저항을 바탕으로 한다. 이런 관점에서 일상적 평화는 단순한 갈등진정 수준을 넘어 보다 궁극적인 “갈등와해(conflict disruption)”에 기여하는 적극적인 평화구축 행위라고 할 수 있다.⁴⁾ 따라서 넓은 관점에서 일상적 평화는 미시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사소한 평화의 행동양식이나 사고방식이 국가나 사회의 거시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완화하고 더 나아가 갈등을 와해시키는 데 미치는 영향, 즉, 개인적이고 미시적인 차원에서 발휘되는 평화의 역량이 거시적 차원의 사회체제나 구조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루어지는 평화의 구성성(constructivity)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다. 일상적 평화는 국가나 국제사회가 주도하는 탑다운 방식의 평화구축과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에서 이루어가는 바텀업 방식의 평화구축 사이의 관계성과 상호작용에 주목하며, 빌리그(Billig)가 제시한 일상의 “평범성(banality)”⁵⁾과 유사한 관점에서 평범해 보이는 개인들의 일상적인 생

3) Roger Mac Ginty, *Everyday Peace: How So-called Ordinary People Can Disrupt Violent Conflic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1).

4) *Ibid*, pp. 190-211.

5) Michael Billig, *Banal Nationalism* (London, Thousands Oaks & New Delhi: SAGE Publications, 1995).

각이나 관습이 지닌 정치적인 의미와 역할을 강조한다.⁶⁾

본 연구는 통일이라는 거대 담론에 치중한 국내 평화논의를 일상적 평화이론을 통해 미시적이고 개인적 차원을 포함하는 평화개념으로 확장하고 이를 통해 국내 평화담론을 다양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국제평화학계에서도 새로운 개념에 속하는 일상적 평화이론을 맥킨티(Mac Ginty)의 연구를 중심으로 이론의 등장 배경, 정의, 특징을 소개하고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관점에 치중한 평화이론들과 차별화되는 일상적 평화 의의와 한계 그리고 확장성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일상적 평화가 한반도 사례에 제공하는 유의미한 시사점을 논의한다. 일상적 평화이론은 국내 평화담론에서는 논의된 적 없는 미시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친평화적인 행동양식과 사고방식을 강조하는 평화개념으로 통일에 치중한 한반도의 평화논의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II. 일상적 평화이론

1. 등장배경과 정의

1990년대 탈냉전이라는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다수 발생한 내전을 수습하고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은 주로 서구국가 중심으로 구성된 국제기구의 개입과 원조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평화구축 방식을 “자유

6) 보스니아와 헤르체고비나 그리고 북아일랜드를 사례로 일상적 평화의 정치적 측면을 강조한 다음의 연구 참조. Branka Marijan, “The Politics of Everyday Peace in Bosnia and Herzegovina and Northern Ireland,” *Peacebuilding*, vol. 5, no. 1 (2017), pp. 67-81 참조.

주의 평화(liberal peace)” 모델이라고 한다.⁷⁾ 자유주의 평화는 원조 역량을 갖춘 서유럽과 북미 국가들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서구 역사와 문화에서 발전된 자유주의 사상과 체제를 근간으로 민주주의 정치체제와 사법 체제 그리고 자유선거 등을 분쟁 지역에 일률적으로 이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⁸⁾ 하지만, 외부행위자들에 의한 평화구축 활동이 종료된 이후 사회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평화프로세스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며 폭력 갈등으로 회귀하거나 독재권력이 등장하거나 대량학살이 발생하는 사례들이 나타나면서 평화갈등학(Peace and Conflict Studies)에서 자유주의 평화 방식에 대한 비판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⁹⁾

이런 맥락에서 2000년대 초반 지역을 가장 잘 이해하는 주민과 로컬 행위자들이 평화구축 과정에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포스트자유주의 평화(post-liberal peacebuilding) 담론이 등장한다.¹⁰⁾ 포스트자유주의 평화에 속하는 여러 담론에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개념인 “로컬오너십(local ownership)”은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서 전쟁이나 폭력적 갈등이 발생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정치, 사회, 문화적인 구조를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가장 잘 이해하는 지역 주민의 역할의 중요성을 지적한다.¹¹⁾ 이처럼 포스트자

7) Oliver P. Richmond, *A Post-Liberal Peace*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11), pp. 4-7.

8) Madhav Joshi, Sung Yong Lee and Roger Mac Ginty, “Just How Liberal Is the Liberal Peace?” *International Peacekeeping*, vol. 21, no. 3 (2014), pp. 364-389.

9) Oliver P. Richmond, *A Post-Liberal Peace*, pp. 7-13; David Chandler, “Resilience and the ‘Everyday’: Beyond the Paradox of ‘Liberal Peace,’”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41 (2014), pp. 27-48; Sung Yong Lee, *Local Ownership in Asian Peacebuilding: Development of Local Peacebuilding Models* (Switzerland: Palgrave MacMillan, 2019), pp. 1-5.

10) Oliver P. Richmond, *A Post-Liberal Peace*, pp. 103-113.

11) 로컬오너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Sung Yong Lee and Alpaslan

유주의 평화 담론은 기존 자유주의 평화 모델에서 배제되었던 ‘로컬’과 ‘일상’에 주목하는 평화개념이다.¹²⁾ ‘로컬 대 글로벌’ ‘구조 대 행위자’와 같은 이분법적 사고의 한계를 넘어 로컬과 글로벌 그리고 구조와 행위자가 일상(everyday)이란 공간에서 만나고 부딪히며 상호 반발, 수정과 수용 등의 과정을 겪으며 평화구축의 과정이 이루어질 때 평화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포스트자유주의 평화는 자유주의 평화의 탐다운 방식과 로컬의 바텀업 평화구축이 혼합된 형태의 평화이다.¹³⁾

‘일상’의 개념에 관한 사회학이나 인류학 분야에서의 논의는 매우 다양하고 깊어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선다. 하지만 일상적 평화 이론가들이 주목한 일상의 개념을 간단히 살펴보면, 우선 찬들러(David Chandler)는 ‘로컬’과 ‘일상’은 “평범한 사람들의 행위주체성이 발휘되는 상호작용 속에서 관행이 이루어지는 유동적이고 미시적인 프로세스”라고 보았다.¹⁴⁾ 이런 관점은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그들이 속해서 매일을 살아가는 환경(맥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¹⁵⁾ 리치몬드(Olivier P. Richmond)는 일상이란 개인과 공동체가 살아가는 공간이자 지역적 맥락 속에서 국가나 국제

Özerdem eds., *Local Ownership in International Peacebuilding: Key Theoretical and Practical Issu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15); Sung Yong Lee, *Local Ownership in Asian Peacebuilding: Development of Local Peacebuilding Models*.

12) Oliver P. Richmond, *A Post-Liberal Peace*, pp. 117-150.

13) Olivier Richmond and Audra Mitchell, *Hybrid Forms of Peace: From Everyday Agency to Post-Liberalism* (Houndmills: Palgrave Macmillan, 2011).

14) David Chandler, “Resilience and the ‘Everyday’: Beyond the Paradox of ‘Liberal Peace’”, p. 43.

15) 여기서 의미하는 환경은 자연적 환경이 아니라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사회적 환경이다. 사회적 환경은 다시 해당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Michael Foucault, *Society Must Be Defended: Lectures on the Collège de France 1978-1979* (London: Allen Lane, 2003), p. 245.

적인 질서에 대한 정치적 전략을 발전시키는 공간이라고 정의하는데, 이러한 일상의 개념을 바탕으로 포스트자유주의적인 평화는 보편적인 자유주의 평화를 추구하는 글로벌 차원에서 형성될 뿐만 아니라 지역적 맥락이 고려된 로컬 차원에서도 형성될 수 있다.¹⁶⁾ 일상적 평화 개념을 체계화한 맥킨티는 일상을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 매일 이루어지는 평범한 일들과 사고과정”으로 비교적 단순하게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일상은 삶을 구성하는 관행과 사고방식이 발생하는 공간이자 일상에서 당연하다고 받아들여지는 반복적이고 평범한 일 자체를 의미한다고 설명한다.¹⁷⁾ 맥킨티가 제시한 개념과 유사한 관점에서 어티제어(Severine Autesserre)는 평범한 사람들이 일상의 삶에서 걸보기에는 평범하고 사소하여 거시적 차원의 평화구축과는 전혀 상관없는 듯 보이는 활동들이 거시적 차원에서 폭력 사태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¹⁸⁾

일상에서의 관행과 사고방식은 배경이 되는 정치, 사회, 문화, 역사적 맥락과 연결하여 생각할 때 의미가 있다.¹⁹⁾ 특히 갈등이 심각한 사회의 일상에서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행동양식이나 사고방식은 그렇지 않은 사회에서는 비정상적인 것일 수 있다. 일상적 평화는 거시적 현상이 발생하는 ‘배경’으로서만 일상을 인식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일상을 사회적 세계(social world)로 인식하며 일상 자체가 가진 의미

16) Olivier P. Richmond, “Resistance and the Post-liberal Peace,”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38, no. 3 (2010), pp. 670-671.

17) Roger Mac Ginty, “Everyday Peace: Bottom-up and Local Agency in Conflict-affected Societies,” *Security Dialogue*, vol. 46, no. 5 (2014), p. 550; Roger Mac Ginty, *Everyday Peace: How So-called Ordinary People Can Disrupt Violent Conflict*, p. 27.

18) Severine Autesserre, “International Peacebuilding and Local Success: Assumptions and Effectiveness,”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19 (2017), p. 124.

19) Roger Mac Ginty, “Everyday Peace: Bottom-up and Local Agency in Conflict-affected Societies,” p. 550.

에 주목한다. 이에 따라 일상에서의 모든 장소와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정치적이며²⁰⁾ 일상의 미시적인 활동이나 사고방식은 일상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는 거시적인 체제의 한 부분이자 동시에 체제를 구성하는 요소이다.²¹⁾ 다시 말해 일상은 사회체제나 규범 그리고 질서와 같은 구조적 차원과 개인들의 지극히 일상적인 행동양식과 담론이 교차하며 상호작용이 발생하는 사회적 공간이다. 이처럼 평화구축과 일상을 결합하여 생각하는 것은 평화구축이 바텀업 프로세스라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다. 평화구축의 과정에서 일상이라는 공간과 일상에서 벌어지는 관행이나 담론을 이해하고 주목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평화구축이 곧 국가건설(statebuilding)로 이해되는 자유주의 평화 모델을 넘어 평화를 만들어내는 보다 지역적이고 미시적인 과정에 주목하려는 시도이다.²²⁾

포스트자유주의 담론 중에서도 가장 개인적이고 미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상적 평화는 분열이 심각하고 갈등이 만성화된 사회에서 평범한 개인들이 일상에서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 활용하는 일련의 사회적이며 평화적인 행동양식과 사고방식을 의미한다.²³⁾ 따라서 일상적 평화 이론의 주요 연구 대상은 갈등의 근본 원인이 되는 종파, 인종, 민족의 경계를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평범한 개인들의 평화적인 상호작용이다.

20) Roger Mac Ginty, *Everyday Peace: How So-called Ordinary People Can Disrupt Violent Conflict*, p. 29.

21) *Ibid.*, pp. 3-4.

22) Oliver P. Richmond, *A Post-Liberal Peace*, pp. 117-119.

23) Roger Mac Ginty, *Everyday Peace: How So-called Ordinary People Can Disrupt Violent Conflict*, p. 2.

2. 범위와 특징

좁은 의미에서 일상적 평화는 갈등사회를 살아가는 개인들의 일상에 내면화된 대응기제나 생존전략을 의미한다.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하고 일상의 삶을 살아내는 방식에 담겨있는 일종의 전략적 행동으로 인간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족이나 가까운 또래 집단을 통해 사회적으로 학습된 행동양식이다. 구체적인 유형으로 위협이나 갈등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회피(avoidance)”, “모호함 유지(ambiguity)”, “의례적인 예절(ritualized politeness)”, “식별(telling)” 또는 “책임회피(blame deferring)”와 같은 사회적 관행이나 생존전략이 있다.²⁴⁾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대응기제는 “회피”로 논란이 되는 예민한 주제들을 피함으로써 갈등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또는 자신의 신념이나 정체성을 드러내어 맞닥뜨릴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나 상대 집단과의 접촉과 교류 자체를 거부하기도 하며 내집단의 급진주의자들과의 만남을 피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회피는 갈등이나 갈등 문제 자체에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폭력과 갈등의 기억을 억누르며 현재의 삶에만 집중하는 태도로 드러날 수도 있다. “모호함 유지”는 특정 집단과의 유대관계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정체성이 드러날 수 있는 특정 의상이나 역할 등을 감추거나 반대로 상대의 정체성을 의도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척하여 갈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행동양식이다. “의례적인 예절”은 주로 “모호한 유지”와 함께 사용되며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위협을 증가시킬만한 행동이나 언어 사용을 피하고 집단 간 이미 형성된 예절 체계에 따라 행동하여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피하고 일상적 평화를 유지한다. “식별”은 상대의 외모나 이름, 습관, 의상, 언어 사용 등을

²⁴⁾ Roger Mac Ginty, “Everyday Peace: Bottom-up and Local Agency in Conflict-affected Societies,” pp. 555-557.

통해 직관적으로 상대의 정체성을 판단하고 이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적절히 조절하는 대응기제이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갈등했던 신교도와 구교도가 함께 섞여 살아가는 북아일랜드 사회에서 억양이나 이름과 같은 특징을 통해 상대의 정체성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상대 집단으로 식별되는 경우 위협이 될 수 있는 언행을 피하며 예민한 경계심을 바탕으로 적절하게 행동을 조절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주지가 분리되거나 종교에 따라 정체성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특징이 있는 경우에는 비교적 쉽게 식별이 가능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식별은 개인의 직관적인 관찰과 판단 능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마지막 유형은 “책임회피”로 내집단의 문제를 외부나 소수 집단 탓으로 돌림으로써 내집단의 유대를 강화하고 갈등을 회피한다.

이와 같은 일상적 평화의 대응기제나 행동양식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일시적인 행동에 불과하거나 갈등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도록 허울을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갈등과 대립의 정도가 높아 사회적 긴장상태가 유지되는 지역에서는 갈등의 상대 집단에 속하는 개인이나 공동체 간에 발생하는 매우 사소한 일상적 평화의 언행일지라도 그 사회를 지배하는 갈등구조나 갈등문화에 저항해야 하며 때로는 개인적인 손해나 위험까지도 감수해야 한다는 점에서 갈등와해와 평화구축에 기여하는 적극적인 평화 행위로 볼 수 있다.²⁵⁾ 사소한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사회적 긴장 상태가 폭력 사태로 확대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갈등사회에서는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일상적 평화의 관행일지라도 실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창의성과 즉흥성 그리고 행위주체성이 발휘되어야 하며 이런 관점에서 일상적

25) 일상적 평화의 “갈등와해” 역할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Roger Mac Ginty, *Everyday Peace: How So-called Ordinary People Can Disrupt Violent Conflict*, pp. 190-211 참조.

평화는 단순한 대응기제 이상의 의미가 있으며, 위협과 갈등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개인적인 목적에서 시작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사회의 갈등을 완화하고 평화를 구축하고자 하는 보다 공익적인 목적에서 비롯될 수도 있다.

일상적 평화이론이 지역적이고 미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평화에 주목한다고 해서 국가나 국제기구가 주도하는 탑다운 평화구축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다. 탑다운 방식의 평화구축은 갈등지역에서 물리적이고 법적인 안전과 안보를 제공하는 것과 같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다만 일상적 평화는 탑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평화구축 과정에서 갈등사회의 잠재적인 위험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평화가 유지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평범한 사람들이 취하는 행동양식과 사고방식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적극적 평화나 인권, 또는 갈등전환과 같은 개념들은 갈등사회의 구조적이고 관계적인 변화의 중요성에 주목한다면 일상적 평화는 평화의 다양한 갈등에 내포된 초국가적이고 거시적인 구조적 측면을 고려하는 동시에 미시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평화구축이 함께 고려될 때 평화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²⁶⁾

일상적 평화의 행동양식은 갈등사회의 배경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형태로 나타난다. 일례로 갈등 집단 간 물리적 장벽이 존재하는 분쟁지역에서는 일상적 평화의 실행이 아예 불가능할 수도 있으며 상대 집단에 속하는 사람과의 개인적인 우정이나 친밀함을 표현하는 사소한 행동이나 말로 인해 내집단의 강경파들과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일상적 평화의 구체적인 행동양식은 집단 내 또는 집단 간 갈등 관계에서 상

²⁶⁾ Urmitapa Dutta, Andrea Kashimana Andzenge and Kayla Walking, "The Everyday Peace Project: An Innovative Approach to Peace Pedagogy," *Journal of Peace Education*, vol. 13, no. 1 (2016), p. 81.

황을 판단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결정하는 개인의 인지능력과 감성지능에 따라 달라지며, 순간적인 동정심이나 연민과 같은 감정적 요인을 바탕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 객관화가 어렵다. 일상적 평화의 관행과 규범은 어느 사회에나 보편적으로 존재하지만, 심각하게 분열된 사회에서는 불필요한 갈등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키려는 일상의 관행이나 규범은 특별히 중요한 의미와 역할이 있다. 갈등이 만성화된 사회에서는 작은 사건이나 지극히 개인적인 행동이 폭력 사태로 확장되거나 사회 전체를 혼란으로 몰아갈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직접적 폭력 갈등이 발생하는 현장에서도 일상적 평화는 이루어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전쟁터에서 적에게 인간적인 자비나 동정을 베푸는 군인들의 행동이 대표적 사례이다.

최근 연구들에서 일상적 평화의 범위는 평화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평화적인 사고나 추론의 방식을 포함하며 보다 넓은 관점에서 이해되기 시작했다. 개인이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세계관 또는 위협적 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갈등을 피하고 평화를 추구하는 개인의 사고체계까지도 일상적 평화에 포함된다. 또한 점차 미시적 차원의 평화 활동과 거시적 차원에서의 평화구축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로 확장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갈등지역의 여성 또는 청소년이나 청년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폭력 갈등의 주된 피해자로서 인식하던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행위주체성을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일상에서 갈등을 완화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는 평화구축의 주체적인 행위자로서 인지하며 그들의 평화구축에서의 역할에 관한 연구들로 확장되고 있다.²⁷⁾

27) 갈등지역에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청년이나 청소년의 역할에 주목한 사례연구들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조. Helen Berents and Siobhan McEvoy-Levy, "Theorising Youth and Everyday Peace(building)," *Peacebuilding*, vol. 3, no 2 (2015), pp. 115-125; Helen Berents, "An Embodied Everyday Peace in the midst

3. 개념의 전개

그렇다면 갈등사회에서 물리적인 위협이나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면서 까지 개인들이 일상적 평화를 실행하게 만드는 사고방식의 기저에 자리한 가치는 무엇일까? 일상적 평화의 친평화적 관행과 사고방식을 구성하는 주요 가치에는 사회성(sociality), 호혜성(reciprocity)과 연대(solidarity)가 있으며 이러한 가치들을 소유한 개인일수록 위협과 손해를 감수하면 서라도 인종, 종교, 민족과 같은 갈등의 경계를 초월하여 사회적이고 평화적인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²⁸⁾ 예를 들어 오랜 “고질갈등(intractable conflict)”²⁹⁾으로 대립과 분열이 심한 이스라엘 사회에서 유대인과 팔레스타인 간 종교와 인종적 갈등의 경계를 넘어 개인적인 우정이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개인들의 평화적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의 기초가 되는 가치들이라고 볼 수 있다.

1) 사회성, 호혜, 연대

사회성과 호혜 그리고 연대를 하나로 묶는 가치는 평화의 관계적 본성(relational nature)이다. 즉, 평화는 우리가 다른 인간 존재로 구성된 세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일상적 평화를

of Violence,” *Peacebuilding*, vol. 3, no. 2 (2015), pp. 186-199.

²⁸⁾ Roger Mac Ginty, *Everyday Peace: How So-called Ordinary People Can Disrupt Violent Conflict*, pp. 51-70 참조로 작성됨.

²⁹⁾ 제2차 세계대전 종식이후 발생한 현대갈등을 분류하는 기준으로 제시된 “다루기 어려운 고질적인 갈등(intractable conflict, 고질갈등)”은 폭력을 동반한 갈등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지 못한 채 장기간 지속되어 그 해결이 매우 까다롭고 다루기 어려운 갈등을 의미한다. 대표적 사례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분쟁, 북아일랜드 갈등이 있으며 남북한 갈등도 고질갈등에 해당한다. 고질갈등의 자세한 내용은 허지영, 「고질갈등 이론으로 보는 남북관계」, 서보혁·문인철(편) 『12개 렌즈로 보는 남북관계』 (서울: 박영사, 2021), 211~234쪽 참조.

“첫 번째 평화(the first peace)”이자 “마지막 평화(the last peace)”라고 지칭하는데, 집단 간 팽팽한 긴장 상태가 물리적인 폭력으로 치닫는 상황을 막는 최후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마지막 평화라 할 수 있다.³⁰⁾ 반면 직접적 폭력과 갈등이 종식된 이후 사회를 정상화하고 재건하는 과정의 첫 단계로서 사회의 접착체(social glue) 역할을 하며 궁극적으로 화해라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첫 번째 평화이다.

일상적 평화를 뒷받침하는 주요 개념 중 하나인 사회성은 공감, 이타주의, 호혜성, 공정함이나 협력과 같은 정서적인 요소로 구성되기 때문에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지만, 앞서 다른 사람들로 구성된 세계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평화의 관계적 본성과 연결해 생각해 보면 사회성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려는 성향으로 볼 수 있다. 사회성은 해당 사회의 문화나 갈등을 유발한 사회정치적 맥락에 따라 다른 형태로 표현되며 인종, 성, 나이, 계층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사회성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면, 우선 사회성은 감정의 영역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개인 그리고 개인들로 구성된 집단은 항상 “이성적이고 단일한” 존재가 아니며³¹⁾ 사회성은 항상 변화하며 때로는 실험적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공유된 관습이나 문화, 또는 익숙함에 따라 행동하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상대와의 접촉점을 형성하고 사회성을 발휘할 수 있는 주체적인 공간을 만들기도 한다. 상황을 분석하고 적절한 행동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창의적이고 주체적인 사회성이 발휘된다.

30) Roger Mac Ginty, *Everyday Peace: How So-called Ordinary People Can Disrupt Violent Conflict*, p. 4.

31) Denisa Kostovicova, Ivor Sokolic and Orli Fridman, “Introduction: Below Peace Agreements: Everyday Nationalism or Everyday Peace?” *Nations and Nationalism*, vol. 26 (2020), p. 425.

하지만 분열과 갈등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사회성을 발휘하고 적절한 행동양식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 자체가 부정확할 수 있고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된 행동은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것은 갈등사회에서 사회성은 발휘되는 시점이 중요하다는 특징과 연결된다. 갈등 고조기에는 사회성을 발휘하는 것이 아예 불가능할 수 있는 반면 갈등이 완화되는 시기에 들어서면 사회성을 발휘하기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기도 한다. 이렇게 갈등사회에서 사회성을 발휘하는 시기와 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능력에 달려있어 상황을 해석하고 적절한 시기를 판단하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성의 발휘 여부는 달라진다. 또한 소셜미디어와 같은 새로운 의사소통 수단의 등장도 전통적인 사회성의 수단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한다. 신기술의 시대에도 일상적 평화의 바탕이 되는 사회성은 여전히 인간의 감성과 상황판단 능력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일상적 평화 행위의 기초를 형성하는 또 다른 중요 개념은 호혜성으로 호혜 또한 다른 형태와 강도로 나타난다. 특정 보상에 대한 기대 없이 이타적인 목적에서 비롯되거나 언젠가는 보상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에서 시작되는 이타주의적인 호혜도 있지만 특정한 보상을 바라는 이성적인 판단이나 이해계산에서 비롯되는 전략적 호혜도 있다. 하지만 설사 이기적인 동기에서 시작된 선의의 행동일지라도 결과적으로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호혜는 중요하다. 특히 갈등이 만연한 사회나 폭력 갈등에서 벗어난 직후에는 작은 평화적인 언행도 중요한 역할과 의미가 있다. 예를 들어 유대인이 팔레스타인 여성을 위해 문을 잡아 주는 것과 같은 사소한 행동들이 반복되며 두 집단 사이의 긴장완화와 관계 정상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호혜의 행동은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단순한 물질 자원의 교환이나 호의적인 행동을 교환하는 차원을 넘어 공통

규범을 형성하고 상호의존도를 높이고 유대와 사회성을 발전시킬 수 있다. 특히 갈등이 오래 지속된 사회에서는 흔히 상대 집단을 비도덕적이며 악한 존재로 묘사하는 갈등내러티브가 발전되고 유지된다. 호혜의 행동은 이렇게 갈등사회를 지배하는 갈등내러티브와 이분법적 세계관 그리고 갈등문화에 저항하며 상대와 접촉점과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평화행위라고 할 수 있다. 갈등사회의 배경상황에 따라 호혜의 행동이 위협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이런 작은 노력들이 협력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시작점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일상적 평화는 ‘첫 번째 평화’이다.

마지막으로 연대는 매우 행동지향적인 개념이다. 단순한 공감이나 동조와 같은 수준을 넘어 확실한 행동을 요구한다. 갈등사회에서는 흔히 저항세력이나 무장단체와 같은 집단들이 연대나 공동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이처럼 연대는 때때로 정체성에 따른 갈등을 유발하거나 유지하는 수단으로 쓰이며 정체성에 따른 차별과 갈등을 확대하는 부정적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반면, 상대 집단에 소속된 사람과 맺는 개인적 차원의 긍정적 연대는 사회를 관통하는 분열의 규범을 초월하여 행동으로 실천하기까지 상당한 용기가 필요하다. 전쟁이나 폭력적 갈등을 멈추고 평화를 선언하는 문제는 정치지도자들에게 달려있을지라도 그 사회에 구체적으로 어떤 평화를 만들어가느냐는 사회를 구성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사고방식과 행동에 달려있다.

2) 회로와 회로망

일상적 평화이론은 포스트자우주의 평화 개념 중에서도 최근에 등장한 개념으로 일상적 평화가 갈등을 회피하거나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갈등하는 집단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갈등사회의 헤게모니적인 갈등문화와 구조를 전환하는 데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로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그렇다면 미시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일상적 평화와 거시적인 구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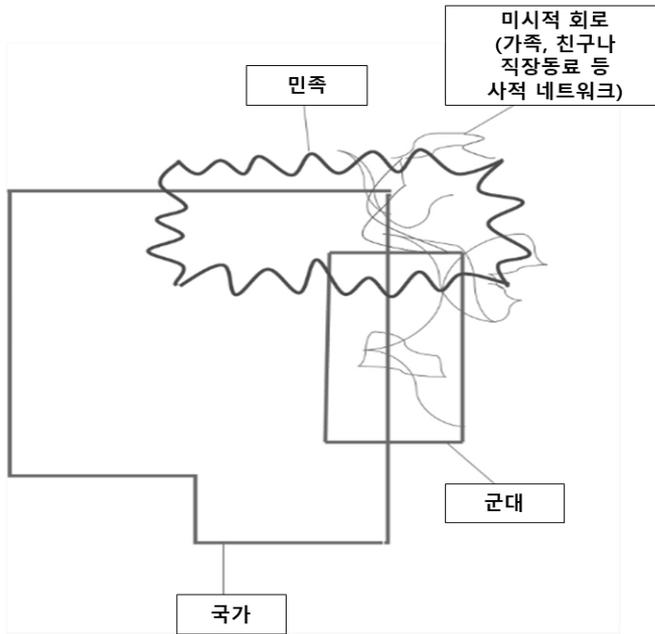
사회는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 이번 절에서는 일상적 평화의 활동과 거시적 맥락의 사회, 경제, 정치, 문화의 연결성과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회로(circuits)”와 “회로망(circuitry)”의 개념을 살펴보고자 한다.³²⁾

일반적으로 국제관계학에서 세계는 개인, 국가, 그리고 국제사회의 층위로 나누어 이해된다. 국가는 폭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고 대신 개인은 국가에 충성을 약속하고 일정 권한을 양도한다.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체제 안에서 국가는 철저히 생존을 목적으로 행동한다. 회로와 회로망의 개념은 이러한 전통적인 국제관계학의 위계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 다층적으로 구성된 세계를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그림 1>은 갈등과 분열이 심각한 국가의 회로망을 도식화한 것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회로의 개념은 세상을 ‘지역 대 세계’ 또는 ‘행위자 대 구조’와 같이 이해하는 이분법적이고 위계적인 사고방식이 아닌 평화와 갈등의 복잡하고 역동적인 성격과 사회의 상관성(interconnected nature)을 강조한다. 회로망 구조에서 보면 개인과 집단의 일상은 사회의 체제나 구조와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개인이나 소집단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적 행동들은 국가와 같은 거시적인 차원의 체제와 구조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며 변화한다. 같은 맥락에서 국가나 국제적인 차원의 거시적인 갈등은 평범하고 일상적인 삶의 방식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³³⁾

³²⁾ Roger Mac Ginty, *Everyday Peace: How So-called Ordinary People Can Disrupt Violent Conflict*, pp. 34-45.

³³⁾ William Foote Whyte, *Street Corner Society: The Social Structure of an Italian Slu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p. xvi.

〈그림 1〉 갈등에 영향을 받은 사회의 회로망



출처: Roger Mac Ginty, *Everyday Peace: How So-called Ordinary People Can Disrupt Violent Conflic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1), p. 46.

다양한 회로들은 서로 다른 층위, 즉 세계적, 지역적 또는 미시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동시에 운영되며 이 과정에서 서로 겹치기도 하고 융합되거나 경쟁한다. 예를 들어 직업 군인은 군대 회로에서는 그에 맞는 규범에 따라 행동을 선택하지만,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개인적인 회로에서는 국가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등 제도적이고 공식적인 회로에서와는 다른 행동양식을 따를 수 있다. 또한 〈그림 1〉에 있는 회로들은 더 거시적인 층위의 국제적 또는 초국가적인 회로에 포함된다. 이처럼 비형식적이며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의 회로들도 회로

망의 전체적인 구조에서 바라보면 국제적이고 초국가적인 회로들과 중첩되거나 연결되어 있다.

회로를 통해 미시적인 일상적 평화와 거시적인 구조의 상관관계를 이해하고자 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이 몇 가지 있다. 우선, 일상적 평화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게 된다. 회로의 복잡성, 예상치 못한 경로와 연결, 물질적이고 비물질적인 속성과 같이 회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은 때로는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여 발생한다. 결국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평화의 관계를 이해하려 노력하지만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또한 회로는 사람, 사상, 힘, 상품이나 자본의 끊임없는 움직임과 이동이 이루어지는 사회의 인프라를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일상적 평화의 인프라는 주로 사회적인 동시에 비형식적이다. 일례로 갈등사회에서 개인 간 우정을 바탕으로 하는 네트워크는 사회적 인 동시에 비형식적인데, 회로를 통해 이런 비형식적이고 사회적인 관계를 표현할 수 있다. 또한 회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개선된다. 물리적 회로뿐만 아니라 비물리적 회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손상되거나 변화된다. 이러한 회로의 특징은 우리 사회의 ‘갈등회로’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손상되거나 변화되며 대안적인 ‘평화적이고 친사회적인 회로’가 형성될 가능성은 늘 존재하며 궁극적으로 대안적인 평화체제가 갈등규범이나 문화를 해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회로를 형성하고 유지하며 운영하는 과정에는 행위자의 주체적인 판단이 개입된다. 따라서 회로는 행위주체성(agency)이 잘 드러나는 공간이다. 예를 들어 전자회로는 정보의 이동을 통제할 것인가 허용할 것인가와 같은 수많은 결정을 내리는 데 행위자의 판단이 요구된다.

한편 회로는 일정한 질서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사회를 통제하고 정해진 질서에 따라 움직이도록 유도한다는 점에서 경로의존적이다. 회로의 경로의존적인 특징은 국가나 사회의 통치체제에서 발견되는 질서와 규

직성과 유사하다. 하지만 동시에 회로는 기존 질서에 분열과 전복을 가져오는 행위자의 주체성이 발휘되는 공간이다. 즉 행위자의 주체성이 회로를 강화하기보다는 분열시키고 현재 존재하는 회로에 변화를 가져오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발휘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경로의존적인 복제의 공간인 회로가 때때로 혁신의 공간이 된다. 이런 관점에서 회로는 기존의 갈등 규범을 해체하고 평화에 헌신적인 새로운 규범이 들어설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주체적인 행위자들에 의해 만들어진다. 갈등을 재생산하고 유지하는 기존 질서와 문화를 파괴하고 일상적 평화의 새로운 개념과 관습이 형성될 수 있도록 행위자들은 주체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회로를 변화시킬 수 있다.

또한 회로망은 미시적인 지역 차원에서 형성된 회로들이 거시적 차원의 회로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 유용하다. 회로는 여러 층위에서 존재하고 운영되며 다른 회로들과 여러 방법으로 연결되고 각기 다른 형태로 형성된다. 다른 목적, 기능, 목표를 가진 다양한 회로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공유무역이나 외환거래와 같은 목적의 금융 회로는 자동화되어 짧은 순간에 교환이 발생하고 제한적인 인간의 개입을 필요로 하지만, 종교와 같이 영적인 영역이나 신념체계를 다루며 인간의 개입이 최대화되는 회로도 있다. 이처럼 회로의 개념을 도입해 일상적 평화의 미시적인 차원과 거시적 구조와의 관련성을 이해하려는 시도는 다소 생소하지만, '구조 대 행위자', '글로벌 대 로컬', 또는 '거시 대 미시'와 같은 이분법적 도식을 넘어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평화의 행위나 사고방식의 구성성에 대한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Ⅲ. 일상적 평화의 의의와 확장성

1. 의의

일상적 평화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외부전문가들의 개입에 의해 프로젝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평화구축 방식이 지닌 한계를 넘어 평화구축 활동에 있어 지역주민들의 평화 역량의 중요성에 주목한다는 점에 있다. 외부로부터 일방적으로 이식되는 평화구축 계획이나 원조를 수용하는 수동적인 지역주민이 아니라 적극적인 평화의 행위자로서의 평범한 개인들의 역량과 역할에 주목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상적 평화는 평화와 갈등 연구의 ‘원조국과 수혜국’, ‘글로벌과 로컬’, ‘구조와 행위자’ 등의 이분법적이고 위계적인 사고방식을 뛰어넘고자 하는 시도로써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일상적이고 친숙한 사회적 관습의 평범성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기능과 역할을 탐구한다는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다. 무엇보다 일상적 평화는 사회적 세계의 유동성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의 갈등을 논의하기 위해 갈등의 경계나 정체성과 같은 개념들이 마치 고정적이며 불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는 실상 매우 유동적이다. 따라서 평화와 갈등 연구에서도 개인이나 집단, 그리고 그들의 행위의 유연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일상적 평화는 사회의 유연성을 최대한 고려할 뿐만 아니라 단일해 보이는 집단의 이질성을 반영한 개념이다. 집단이란 일정 수준의 동질성을 유지하는 성향이 있지만, 집단 내에도 다른 생각과 의견들이 공존하며 상당한 이질성이 내포되어 있다. 결국 집단은 행위주체성을 가진 개인들로 이루어진 집합이며 개인들은 상대 집단과의 교류와 상호작용에 대해 각기 다른 태도를 가질 수 있다.

국제사회는 인종, 종교, 민족과 같은 거대 갈등요인에 주로 집중하며 이에 따라 외부전문가들의 평화구축 활동도 거시적인 갈등요인에 치중하기 쉽다. 이것이 오히려 지역 사회에 다른 문제나 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일상적 평화는 국제사회의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평화구축 활동에서 경시되어온 로컬의 복잡한 사회적 규범이나 관습 등을 통해 평화구축의 방법을 발견해내는 개인이나 소집단의 능력에 집중함으로써 개인의 행위주체성과 창의성이 평화구축 활동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발견하고 외부 평화구축 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나가는 로컬의 능력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일상적 평화이론에서 개인은 평화구축의 과정에서 사회를 지배하는 갈등문화나 질서에 순응하는 피행위자(subject)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체적 행위자(agent)로서 창의성을 발휘한다. 즉, 갈등사회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은 사회적 규율이나 질서에 순응하기도 하지만 때에 따라 행위주체성을 바탕으로 기존 질서에 저항하며 즉흥적이고 창의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 일상적 평화는 이러한 인간의 평화적 역량에 대한 관심을 바탕으로 한 평화개념으로서 의미가 있다. 갈등이 일상화된 사회에서도 의외로 종파, 인종, 민족과 같은 분열의 경계를 넘어서는 상호작용이 일상적으로 존재하며 유무형의 경계에서 이루어지는 평범한 사람들의 활동이 정치나 사회의 구조와 질서를 구성하고 변화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일상적 평화는 기존의 평화개념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미시적 차원의 평화적 관행과 사고방식을 다룰 뿐만 아니라 미시적 차원과 거시적 구조의 상관성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2. 이론의 한계와 확장성

1) 한계

앞서 설명한 일상적 평화의 차별화된 특징으로 인해 오히려 일상적 평화 개념의 한계를 지적하는 비평도 적지 않다.³⁴⁾ 우선, 일상적 평화는 적극적으로 갈등을 전환하기 위한 행위라기보다는 개인적 차원에서 갈등을 회피하거나 최소의 수준으로 관리하거나 심지어 갈등을 유지하는 최소주의 평화로 인식되기도 하며 바로 이런 특징 때문에 일상적 평화를 통해서는 궁극적인 평화에 도달할 수 없다고 보는 지적이 있다. 또한 갈등사회에서 상대 집단과의 개인 차원의 미시적인 접촉이 오히려 갈등을 지속시키거나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일상적 평화의 일차적인 목표는 갈등을 인정하고 개인이나 소집단 간 사소하게 발생하는 관용이나 공존의 행위를 통해 갈등으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일상적 평화의 행동양식은 갈등이 일상화된 사회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작동하는 형태의 평화이다. 사소한 언행이 폭력 사태로 촉발될 수 있는 긴장이 가득한 사회에서는 개인적 차원에서 갈등을 관리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취하는 일상적 평화의 행동조치 상당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때로는 자신이 속한 집단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거나 추방당할 위험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일상적 평화는 단순한 갈등관리나 갈등회피의 차원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평화 행위이다.

또한 사회구조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나 국제적 또는 초국가적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의 경우 개인적이고 지역적 차원에서 행해지는 일상적 평화가 갈등의 궁극적인 해결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게

³⁴⁾ Roger Mac Ginty, "Everyday Peace: Bottom-up and Local Agency in Conflict-affected Societies," pp. 557-559.

나 거의 없을 수 있다. 따라서 일상적 평화의 관행이 엘리트 수준, 즉 정치적인 차원의 정책이나 평화운동과 연결되지 않으면 갈등 상황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불충분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일상적 평화의 연구자들은 인종이나 종교적 차별 또는 정치·경제적 불평등으로 인해 구조적 폭력이 만연한 사회에서도 일상적 평화의 관습적 행동은 여전히 존재하며 일상에서 평화 행위를 반복하는 개인들에 의해 점진적으로 사회를 지배하는 갈등문화나 갈등구조를 해체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외에도 일상적 평화는 갈등이 발생한 사회정치적 상황이나 지리적 또는 문화적 특성에 따라 매우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감성지능과 같은 개인의 예민한 지각과 직관적인 반응 능력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표준화나 프로그램화가 힘들고 일상적 평화가 행해지는 원칙 또한 명시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 지역에서 적용된 일상적 평화의 관행을 다른 지역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없고 또한 갈등을 발생시킨 정치, 사회적 상황이나 지리적 위치나 조건 등에 따라 일상적 평화의 관행과 규범은 상당히 달라지기에 이론화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2) 확장성

미시적 평화담론이 거시적 체제나 구조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미하고 제한적이라는 비판을 넘어서기 위해 최근 일상적 평화연구에서는 로컬 차원을 초월하여 발생하는 일상적 평화와 거시적인 체제나 구조와의 상호작용, 즉 일상적 평화의 확장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³⁵⁾ 일상적 평화는 형식적인 제도권의 수면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비공

³⁵⁾ 미시적이고 개인적 차원의 일상적 평화와 교육, 제도 등의 거시적 차원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에 관한 내용은 다음을 참조. Roger Mac Ginty, *Everyday Peace: How So-called Ordinary People Can Disrupt Violent Conflict*, pp. 191-211;

식적이며 즉흥적인 행동양식으로 시민사회 단체의 활동이나 평화구축 프로젝트보다 더 미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지극히 개인적인 멘토링이나 훈계도 일상적 평화 행위에 포함된다. 따라서 앞서 언급했듯이 표준화나 프로그램화되어 다른 지역에 이식하거나 거시적 차원으로 확산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사회체제나 규범과 같은 거시적인 구조와 개인들의 일상적 행동양식과 담론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며 일상적 평화 관행은 “수직적 확장(scaling-up)”이나 “수평적 확장(scaling out)”의 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다.³⁶⁾ 지역적 관행을 전문화하고 표준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수직적 확장은 한 지역에서 폭력 감소에 효율적으로 증명된 일상적 평화 활동이 외부평화구축 단체나 전문가들에 의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는 방식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의 참여로 즉흥적이고 비규범화된 관행이 표준화되고 다른 조직이나 네트워크와 연결되어 공식적이고 표준적인 프로세스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역적인 또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유기적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일상적 평화활동은 외부 전문가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수직적 확장과는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제도권 아래에서 비공식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일상적 평화는 수직적 방식보다는 수평적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크다.

수평적 확장은 모방이나 구전을 통한 전파를 뜻하며, 고위층과 풀뿌리 차원을 연결하는 중간 지도자층과 사회운동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

Urmitapa Dutta, Andrea Kashimana Andzenge and Kayla Walking, “The Everyday Peace Project”; Berents and McEvoy-Levy, “Theorising Youth”; Berents, “An Embodied Everyday Peace.”; Roger Mac Ginty, “Indicators+: A Proposal for Everyday Peace Indicators,”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vol. 36 (2013), pp. 56-63; Gezim Visoka, “Everyday Peace Capture: Nationalism and the Dynamics of Peace after Violent Conflict,” *Nations and Nationalism*, vol. 26 (2018), pp. 431-446.

³⁶⁾ Roger Mac Ginty, *Everyday Peace: How So-called Ordinary People Can Disrupt Violent Conflict*, p. 47.

를 들어 갈등사회에서 개인이나 소집단이 취하는 친사회적인 행동양식이나 관습이 이웃 지역의 사회운동가들에 의해 모방되며 수평적 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다. 수평적 방식으로 전파되거나 모방되는 일상적 평화의 관행은 사소해 보이며 갈등의 규모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대규모 평화구축 프로젝트들에 비해 효과가 매우 미미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일상적 평화의 관행들이 유기적으로 그리고 수평적으로 확장되며 점진적으로 구조적 차원의 갈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갈등 지역의 주거지나 시장과 같은 평범한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개인들 간의 교류나 협력은 사소하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지역적 갈등회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평화구축의 주체적 행위자로서 개인이나 공동체는 일상적 평화의 관행을 행동으로 직접 실행함으로써 평화에 생명력을 불어넣는다. 일상적 평화의 수평적 확장은 거시적 차원에서 발생하는 정치사회적인 상황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지만, 반대로 개인이나 소그룹의 아주 사소한 행위가 거시적인 체제와 구조를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일상적 평화에서 중요한 것은 평범한 개인들이 친평화적이고 친사회적인 행동을 일상에서 선택하고 실제로 실행하는 것이다. 친평화적인 행동을 일상에서 채택한다는 것은 행동의 반복을 뜻하며 이것은 갈등사회에서 친평화적이고 친사회적인 행동이 정상적인 관행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높인다. 그 결과 지배적인 갈등문화로부터 평화문화로의 점진적인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

IV. 한반도 평화구축에의 함의

일상적 평화이론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논의할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유익은 한반도 평화담론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를 통일을 이루는 정치적 과정으로서만 이해하는 협소한 인식을 넘어 평화의 개념을 확장하고 다양화할 수 있다. 한국 사회에는 갈등의 경계가 뚜렷하지는 않아도 '남남갈등'이라는 용어에 나타나듯이 여전히 유무형의 경계에 따라 만성화된 갈등 현상이 나타난다. 일상적 평화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열과 대립의 경계를 넘어 이루어지는 평범한 사람들의 평화적 행동과 사고양식에 관한 논의로 평화논의를 확장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일상적 평화를 적용하여 유의미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는 사례로 남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연구나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사례 등이 있다. 이런 사례들에 일상적 평화이론을 적용하여 기존 통일담론에서는 주로 분단체제의 피해자로서만 인식되었던 남북한의 평범한 사람들이 평화구축의 주체적 행위자로서 가지고 있는 평화적 역량에 관한 논의로 평화연구의 영역이 확장될 수 있다.

한반도에서 남북한 주민의 직접적 접촉이나 교류는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남한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상당하다. 사실상 여전히 북한과 적대관계에 있는 남한에서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의 일상적 접촉과 만남에는 미묘한 긴장과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남한 사회에서 경험하는 일상의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북한이탈주민들은 나름대로 일상에서 갈등을 회피하고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가지고 이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 일상적 평화개념은 이처럼 북한과 여전히 적대관계에 있는 남한 사회의

문화와 구조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주민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갈등을 최소화하고 평화를 유지하는 친사회적이고 평화적인 행동양식이나 사고방식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한 예로 김수경이 수행한 서울의 교육열이 높은 학군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나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 간의 상호작용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분석된 두 집단의 행동양식과 사고방식³⁷⁾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상적 평화의 실증적 사례로 볼 수 있다. 문화적으로나 계층적으로나 이질성이 분명한 두 집단이 학부모로서 초등학교교라는 공동의 공간에서 자주 접촉하고 교류하며 서로 경계하고 때로 충돌하지만 갈등과 봉합의 과정을 반복하며 서서히 상호 적응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 학부모가 취하는 관찰과 모방의 행동이나 남한 학부모들이 북한이탈주민과 좀 더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에 담긴 평화적인 사고방식은 일상적 평화의 행동양식이자 사고방식이다. 또한 학교는 두 집단 간 긴장이 발생하는 장소이지만 동시에 상호 교류와 이해의 기회를 제공하는 일상적 평화구축의 공간이다.

일상적 평화를 적용하여 유의미한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례로 한국전쟁기 마을 단위에서 발생한 민간인학살연구를 들 수 있다. 민간인학살에 관한 선행연구들이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대부분 과거사 청산의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일상적 평화의 관점을 통한 학살 연구는 극단적인 폭력의 상황에서도 사회성과 호혜, 그리고 연대의 가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평범한 사람들이 실행했던 친평화적인 행동양식과 사고방식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다. 또

37) 김수경,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선주민의 지역사회통합 연구: 초등학교 학부모의 교육문화 충돌 경험을 중심으로」, 『문화사회연구』 제14권 1호 (2021), 37-68쪽.

한, 학살이라는 극단적 폭력의 상황을 경험한 이후 같은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환경에서 어떻게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웃으로 공존했는지에 관해 일상적 평화를 적용하여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이미 존재했던 미시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평화적 관행과 사고방식에 관한 연구로 발전할 수 있다. 일상적 평화이론의 관점에서 한반도에서 발생한 학살 사례를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지만, 필자는 이미 발표된 민간인학살 보고서에서 전쟁 이전부터 자리하고 있던 공동체 문화 또는 개인의 주체적이고 친평화적 행동과 사고방식이 학살의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학살이 발생한 이후 마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례로 아산지역 민간인학살 사례에서는 살펴보면 점령군의 동일한 학살 지침에도 불구하고 마을에 따라 학살의 규모와 특징이 다르게 나타났다.³⁸⁾ 이미 존재하고 있던 지역의 공동체 문화나 지도자의 개인적인 신념이 학살을 이행하는 과정에 영향을 주며 다른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전쟁 이전부터 지주와 소작농 간 갈등이 자주 발생했던 마을에서는 대량학살이 발생했지만,³⁹⁾ 서로 돕고 사는 공동체 문화가 형성되어 있었던 마을 또는 국가의 학살 명령에도 불구하고 마을 지도자가 개인적인 결단으로 마을 주민을 보호하며 학살 피해를 최소화했다.⁴⁰⁾ 로컬에 본래 자리하고 있던 평화적인 문화와 규범, 그리고 개인의 평화적인 사고방식이 전쟁의 상황에서도 학살 명령에 저항하며 갈등을 최소화하고 일상의

38) 아산 지역 민간인 학살 사례 조사를 이끈 한반도통일역사문화연구소(한통연)의 최태욱과의 2021년 8월 26일 진행된 개인 인터뷰에서 발췌. 이후 '최태욱과의 인터뷰'로 표기함.

39) 한반도통일역사문화연구소, 「한국전쟁의 지역사회와 트라우마(보고서 및 녹취록)」 『2020년도 사단법인 평화박물관 추진위원회 지원사업』 (2020. 12. 20), 134~151쪽.

40) 위의 글, 192~200쪽.

평화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다. 국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이고 주체적인 판단에 따라 학살을 막고 이웃과 연대의 행동을 보여준 마을 지도자의 결단과 행동은 개인의 행위주체성이 발휘된 대표적인 일상적 평화의 행동이다. 또한 대량학살이 발생한 마을 대부분은 이후 학살의 가해자나 피해자들이 마을을 떠났거나 갈등이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었지만, 대량학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공동체를 이루고 비교적 평화롭게 주민들이 공존한 사례에서 일상적 평화의 사고방식과 관행이 발견된다. 아산 음봉면의 한 마을은 강력한 중재자의 존재로 인해, 광시면의 마을은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집안 측에서 가해자들을 집단적으로 용서하는 결단을 내림으로써 이후 다시 마을에 평화문화가 정착하고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었다.⁴¹⁾

한국전쟁기 민간인학살 사건에서 발견되는 일상적 평화의 사례는 매우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전쟁 이전부터 존재해 온 한반도의 공동체 중심의 집단적 로컬 문화와 관습이 전쟁과 학살이라는 극단적인 폭력의 상황에서 학살을 최소화하며 마을의 평화를 지키는데 기여한 사실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두 번째, 마을 지도자가 개인적 차원에서 행위주체성을 발휘하여 자신이 위협에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령군의 학살 지침을 거부하고 마을 주민을 보호한 것이다. 아산지역에서 발생한 학살의 규모에 비해 이처럼 일상적 평화가 발견되는 사례는 매우 소수이며 학살이 발생한 다른 지역 연구는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 전쟁과 학살이라는 극단적인 형태의 폭력 속에서도 개인과 지역의 평화를 지향하고 이웃과 연대하는 사고와 행동양식이 존재했으며 학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은 매우 유의미한 발견이다.

마지막으로, 대량 학살이 발생한 이후 갈등하는 집안 사이에 강력한

41) 최태욱과의 인터뷰.

리더십을 갖춘 중재자가 있었던 마을에서는 공동체로서 평화를 유지하고 살아갔다. 이는 레더라흐(John Paul Lederach)의 주장처럼 중간행위자나 지도자가 평화의 영향력을 확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일상적 평화를 지킨 사례라고 할 수 있다.⁴²⁾ 또한, 다수의 학살 피해를 당한 가문이 집단적으로 가해자들을 용서하는 평화적 행위를 통해 마을이 분열과 갈등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공존한 사례는 화해와 평화구축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아산시에서 발생했던 학살 사례들에서 한반도에 이미 존재했던 지역공동체 문화가 냉전과 이데올로기 갈등 그리고 전쟁이라는 극단적인 사회정치적인 혼란 속에서도 지역의 평화를 지키고 유지한 일상적 평화의 실증적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 거시적이고 정치적인 차원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 평범한 사람들의 관행과 사고방식이 폭력의 악화와 학살 피해를 막고 마을의 평화를 지킨 것이다. 언급한 바와 같이 민간인학살 사례가 발생한 지역은 많지만, 일상적 평화의 관점에서 진행된 연구는 전무하다. 앞으로 일상적 평화의 개념을 적용해 구조적 차원의 폭력과 갈등을 넘어 미시적이고 지역적 차원에서 개인 또는 가문이나 마을 공동체가 폭력과 위협을 완화하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창의성과 행위주체성을 발휘하여 마을의 평화를 유지한 사례에 관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⁴²⁾ John Paul Lederach, *Building peace: Sustainable Reconciliation in Divided Societies*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1997), p. 39.

V. 맺음말

본 연구는 폭력적 갈등에서 벗어나 평화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로컬의 역할을 강조하는 포스트자유주의 평화 담론 중에서도 가장 미시적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평화에 주목하는 일상적 평화를 소개하고 한반도 평화구축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일상적 평화는 기존의 거시적인 구조에 치중하여 갈등해소와 평화구축을 설명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혼란스러운 정치사회적 환경 속에서도 일상을 살아내며 갈등을 최소화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평범한 개인들의 행동양식과 사고방식을 연구한다는 점에서 타 평화개념과 차별성이 있다.

일상적 평화를 통해 통일을 이루기 위한 거시적 차원의 정치적 과정으로 협소하게 평화를 이해하는 한반도의 평화담론을 확장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일상적 평화의 관점을 바탕으로 한국전쟁기 정치적 혼란과 분열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개인들이 학살될 위기에 처한 이웃의 생명을 구하고 마을의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한 사례에 관한 연구나 남한 사회를 여전히 지배하는 냉전논리의 적대성을 넘어 남한 주민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북한이탈주민의 평화적 행동양식과 사고방식에 관한 연구 등은 한반도 평화 연구를 다양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남북한 간의 오랜 고질갈등과 분단으로 인해 남북한 사회에 굳어진 갈등문화와 구조를 초월하여 발휘되는 개인들의 평화적 역량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접수: 2021년 10월 31일 / 심사: 2021년 11월 25일 / 게재확정: 2021년 12월 3일

【참고문헌】

- Billig, Michael, *Banal Nationalism*, London, Thousands Oaks & New Delhi: SAGE Publications, 1995.
- Foucault, Michael, *Society Must Be Defended: Lectures on the College de France 1978-1979*, London: Allen Lane, 2003.
- Lederach, John Paul, *Building peace: Sustainable Reconciliation in Divided Societies*, Washington D.C.: United States Institute of Peace Press, 1997.
- Lee, Sung Yong, *Local Ownership in Asian Peacebuilding: Development of Local Peacebuilding Models*, Switzerland: Palgrave Macmillan, 2019.
- Lee, Sung Yong and Özerdem, Alpaslan, eds., *Local Ownership in International Peacebuilding: Key Theoretical and Practical Issues*,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15.
- Mac Ginty, Roger, *Everyday Peace: How So-called Ordinary People Can Disrupt Violent Conflict*,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21.
- Richmond, Oliver P. *A Post-Liberal Peace*, London & New York: Routledge, 2011
- Richmond, Olivier, and Mitchell Audra, *Hybrid Forms of Peace: From Everyday Agency to Post-Liberalism*, Houndmills: Palgrave Macmillan, 2011.
- Whyte, William Foote, *Street Corner Society: The Social Structure of an Italian Slu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 김수경,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선주민의 지역사회통합 연구: 초등학교 학부모의 교육문화 충돌 경험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제14권 1호, 2021, 37~68쪽.
- 허지영, 「고질갈등 이론으로 보는 남북관계」, 서보혁·문인철(편), 『12개 렌즈로 보는 남북관계』, 서울: 박영사, 2021, 211~234쪽.
- Autesserre, Severine, “International Peacebuilding and Local Success: Assumptions and Effectiveness,” *International Studies Review*, vol. 19 (2017), pp. 114-132.
- Berents, Henlen, “An Embodied Everyday Peace in the midst of Violence,” *Peacebuilding*, vol. 3, no. 2 (2015), pp. 186-199.

- Berents, Helen, and McEvoy-Levy, Siobhan, "Theorising Youth and Everyday Peace(building)," *Peacebuilding*, vol. 3, no 2 (2015), pp. 115-125.
- Chandler, David, "Resilience and the 'Everyday': Beyond the Paradox of 'Liberal Peace',"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41 (2014), pp. 27-48.
- Dutta, Urmitapa, Andzenge, Andrea Kashimana, and Walking, Kayla, "The Everyday Peace Project: An Innovative Approach to Peace Pedagogy," *Journal of Peace Education*, vol. 13, no. 1 (2016), pp. 79-104.
- Joshi, Madhav, Lee, Sung Yong, and Mac Ginty, Roger, "Just How Liberal Is the Liberal Peace?" *International Peacekeeping*, vol. 21, no. 3 (2014), pp. 364-389.
- Kostovicova, Denisa, Sokolic, Ivor, and Fridman, Orli, "Introduction: Below Peace Agreements: Everyday Nationalism or Everyday Peace?" *Nations and Nationalism*, vol. 26 (2020), pp. 424-430.
- Marijan, Branka. "The Politics of Everyday Peace in Bosnia and Herzegovina and Northern Ireland," *Peacebuilding*, vol. 5, no. 1 (2017), pp. 67-81.
- Mac Ginty, Roger, "Everyday Peace: Bottom-up and Local Agency in Conflict-affected Societies," *Security Dialogue*, vol. 46, no. 5 (2014), pp. 548-564.
- Mac Ginty, Roger, "Indicators+: A Proposal for Everyday Peace Indicators," *Evaluation and Program Planning*, vol. 36 (2013), pp. 56-63.
- Richmond, Oliver P. "Resistance and the Post-liberal Peace," *Millennium: Journal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38, no. 3 (2010), pp. 665-692.
- Visoka, Gezim, "Everyday Peace Capture: Nationalism and the Dynamics of Peace after Violent Conflict," *Nations and Nationalism*, vol. 26 (2018) pp. 431-446.
-
- 김범수, 「통일과 평화, 시대와 세대 앞에 서다」, 『2021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학술회의, 2021년 10월 5일.
- 박주화, 「통일은 과정인가 결과인가? 국민들의 통일개념을 중심으로」,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8-44, 2018.
- 한반도통일역사문화연구소, 「한국전쟁의 지역사회와 트라우마(보고서 및 녹취록)」, 『2020년도 사단법인 평화박물관 추진위원회 지원사업』, 2020년 12월 20일.

Everyday Peace:
Bottom-up Peacebuilding and Its Implications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Heo, Ji Young (The Seoul Institute)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of everyday peace, based on the critical perspective that varieties of peace have not been considered in the dominant unification discourse in South Korean society, which focuses on the political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Everyday peace refers to the routinized pro-peace and pro-social practices by individuals and collectives living in deeply divided post-conflict societies. Everyday peace, one of post-liberal peace discourses which emerged as a critique of liberal peace, a dominant form of peace-support intervention, occurs in spaces or localities over which individuals and communities exercise limited control. Everyday peace is of significance in that it attempts to go beyond the dichotomies in peace and conflict studies of local vs. global or agent vs. structure. This article closely studies the theory of everyday peace focusing on Mac Ginty's research, discussing its scalability as well as its limits. As a liberal-local hybrid form of peace, everyday peace can contribute to diversifying the peace and unification discourses in South Korea, in which peace is often regarded as political processes for unification.

Keywords: everyday peace, bottom-up peacebuilding, post-liberal peace, liberal peac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허지영(Heo, Ji-Young)

허지영은 서울연구원 초빙 부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더블린 트리니티 대학교에서 국제평화학을 전공하고 베를린 자유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갈등, 갈등전환, 평화 이론과 다자주의 평화구축 방안이 있으며 유럽연합의 도시교류, 평화정책, 대이란 및 대북 비확산정책과 북아일랜드나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을 비롯한 국제 분쟁사례 등을 연구하고 있다.